

# 성(性) 비위 교사들 아직도 교단에...

성희롱, 성추행 등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전북지역 초중고 교사가 수십 명에 이르러 교사에 의한 학생 및 동료교사의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전북은 교원 수 대비 성 비위로 징계 받은 교원이 전국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5일 발표한 '최근 3년간 초중고 교원 성 비위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3년 6개월간 총 13명의 초중고 교원들이 성희롱, 성추행 등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약 30%에 해당하는 4명은 견책과 감봉 등 경징계와 중징계 중에서도 교단 복귀가 가능한 '감봉'과 '정직' 등의 처분을 받고 여전히 교단에 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징계사유로는 '학생 성희롱

## 더민주 박경미 의원, "성 비위 교원 퇴출돼야" 전북, 3년 6개월간 성 비위로 13명 징계 받아

및 성추행', '성매매', '품위유지의무 위반(부적절한 언행으로 수치심유발)' 등이 꼽혔다.

성 비위로 중징계 중에서도 배제징계에 해당하는 '해임'과 '파면' 처분을 받고 교단에서 퇴출된 9명의 징계 사유로는 '교사 및 학생 성추행', '성폭력', '부적절한 이성관계', '이동성추행', '미성년자 강제추행', '여학생 성희롱 및 성추행' 등이 꼽혔다.

전북은 교원 수 대비 성 비위로 징계 받은 교원 숫자도 적지 않았다.

전북은 교원 1만명 당 13건(7.1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가장 많은 지역인 전남 21건(11.2명)과 강원 14건(9.3명), 광주 11건(7.8명), 부산 19건(7.5명), 인천 17건(7.2명) 다음인 전국 6번째로 높았다.

이어 제주 4건(7.0명), 충북 10건(6.9

명), 경기 64건(6.2명), 경남 18건(5.9명), 충남 11건(5.7명), 서울 31건(4.4명), 대구 9건(4.2명), 세종 1건(3.7명), 대전 5건(3.6명), 경북 8건(3.3명), 울산 2건(1.9명) 순이다.

전국적으로 연도별 성 비위 교원 징계건수는 지난 2013년 55건, 2014년 45건, 2015년 98건, 2016년(6월까지) 60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제징계율은 2013년 약 45%이던 것이 2014년 약 51%, 2015년 약 62%, 2016년에도 약 62%로 나타나 성 비위 교원 교단퇴출을 역시 늘려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교육부가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 징계령' 및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성비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성희롱이나 성매매에 대해서는 여전히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 일변도의 처분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박경미 의원은 "최근 3년 6개월 동안의 자료가 이 정도라면 성희롱, 성매매 등 성 비위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교단에 서는 전국의 초중고 교원이 수백 명에 이를 것"이라며 "성범죄는 재범율이 높고, 성희롱과 성추행 등은 가해자가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식과 지혜의 전달자로서 교원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말로 단연 도덕성과 윤리의식일 것"이라면서 "학교와 선생님을 믿고 어린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서라도 성 비위에 대해서는 배제징계 중심의 징계 처분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고민형 기자

##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추진

전주시, 10일~28일까지 25개 고등학교 방문

전주시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인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하반기 학교방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학교방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는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만 17세 학생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이다.

하반기 희망학교 및 신청자 접수결과 총 25개 학교 918명이 신청, 주민등록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발급서비스팀이 11일 기전여자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오는 28일까지 학교별 방문

일정에 맞춰 신청학교로 찾아가 주민등록증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신규 주민등록증은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발급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최고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일홍 전주시 자치행정과장은 "이 서비스는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학사일정 등을 고려해 학교와 협의해 매년 상·하반기에 추진, 학부모와 학생들의 호응이 좋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며 "시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 완산구-건보 심사평가원, 요양병원 합동점검

완산구(구청장 이용호)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전주지원)은 지난 4일 관내 소재 요양병원을 방문해 의료급여 과다이용 장기입원자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요양병원의 난립과 함께 치료 목적이 아닌 숙식 해결 목적의 입원 등 부적정 장기입원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의료비용 절감은 물론 수급자의 건강한 가정 복귀를 위해 실시됐다.

이날 장기입원 의료급여 수급자가 많은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전라북도, 완산구 생활복지과가 합동으로 진행했다.

완산구는 지난 3월부터 34개 요양기관 500여명의 장기입원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집중 상담 등 사례관리를 실시, 부적정 장기입원자 62명에 대해 사회복귀 및 시설입소, 민간지원 연계 등을 추진했다.

완산구청 생활복지과 김인기 과장은 "장기입원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지속적 사례관리를 통해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을 통한 조속한 사회 복귀는 물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 음습하던 선미촌, 문화예술 공간으로 새단장

## 전주시, 폐공가 매입부지 내 첫 설치미술 전시회 개최

60여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성매매 집결지인 선미촌이 문화예술의 옷을 입고 시민 곁으로 다가선다.

전주시와 전주문화재단은 5일부터 오는 9일까지 5일간 선미촌 내 폐공가 부지(불왕말2길 5-4)에서 성매매집결지를 문화재생을 통해 열린 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첫 번째 문화예술 행사로 '노동자 넓이의 구멍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주제로 한 설치미술가 소보람 씨의 작품 전시회를 개최한다.

작품 전시회가 열리는 곳은 전주시가 매입한 선미촌 중심부에 위치한 폐공가로, 이번 전시회는 행정과 여성·인권단체, 시의회와 주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1년여 동안 준비해온 선미촌 문화재생사업의 첫 번째 결과물로 평가된다.

선미촌 문화재생사업은 국내 성매매 집결지 정비가 주로 공권력을 동원해 강제로 행해져왔던 것과는 달리, 행정과 시민단체 등이 힘을 모아 문화예술을 통해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사업이어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아왔다.

시는 이번 전시회가 일반시민들의 접근이 차단됐던 선미촌을 문화가 창조되고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김승수 전주시장이 5일 선미촌 내 폐공가에서 '노동자 넓이의 구멍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주제로 한 설치미술가 소보람씨의 작품 전시회를 찾아 소 작가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수 있는 공간인 서노송예술촌으로 변화시키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선6기 전주시 핵심사업인 선미촌 문화재생은 지역내 폐공가와 성매매업소 등 4필지의 토지(628㎡)와 건물을 매입해 인권·문화·예술거점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성매매업소 집결지를 기능전환을 통해 거대한 시민예술

촌과 여성인권 상징공간으로 바꾸는 프로젝트다.

시는 매입한 폐공가는 쪽방 형태의 여인숙 건물의 일부를 보존해 성매매업소의 기억의 공간으로 남겨두는 한편, 성매매업소의 경우 지역의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정주형 창작예술공간으로 조성해 선미촌에 문화적 활력을 불어 넣는 핵심문화거

점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전시회에 이어 연말까지 예술가들의 선미촌 내 공간에 대한 기록탐색과 기획전시, 생활창작공간 체험활동 등을 진행하고 오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단계 사업과 3단계 정주형 예술창작공간화 작업을 거쳐 선미촌을 인권과 문화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김영재 기자

## 전주시립 송천도서관, 부모감정 코칭 특강

전주시립 송천도서관은 5일 학부모와 시민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모 감정 코칭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부모교육센터 임영주 대표가 강사로 초청돼 '효과적인 훈육의 언어'를 주제로, 아이의 감정을 다치지 않게 소통하는 방법과 언어에 대해 소개했다.

임 대표는 이날 강연에서 참석 학부모들과 '관계가 먼저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마음은 알아주고, 행동은 통제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부모들 스스로 자신의 훈육방법에 대해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을 제공하고, 언행의 일관성과 융통성의 조화로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김유정(39·송천동)씨는 "아이에게는 항상 일관적인 자세를 지키고 훈육에 대한 융통성과

일관성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야 할지 알게 된 것이 가장 큰 수확"이라며 "오늘 배운 방법으로 아이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아이도 나도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영재 기자

**유령회사 명의 대표통장 개설 2000만원 채권 일당 검거**

유령법인회사 명의로 만든 대표통장을 판매해 2000만원을 받아 채권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지방경찰서는 5일 유령법인회사를 설립해 대표통장을 유통시킨 혐의(사기 등)로 대표통장 판매책 김모(20)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영재 기자

제57회

# 한국민속 예술축제

The 57th Korean Folk Arts Festival

제23회

# 전국 청소년 민속예술제

The 23rd National Youth Folk Arts Festival

2016.10.13. 목  
— 16. 일

전라북도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

주관 제57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추진위원회 KoTPA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무형유산원

문의 063-280-1652~3 www.klaf.or.kr